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Conference) 소개
 Introduction of ACA-3 Conference

ACA3 집행본부 기획위원회



제 2 차 아카시아대회 토론회 광경 (필리핀)

1. 머릿말

돌아오는 11월 7일에서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이들간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이사회에 이어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학술토론회가 있으며 연합행사로서 아시아 건축학생 잼보리대회와 건축작품 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리게 되어있다.

이들 행사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학술토론회로서 금번대회의 주제는 '아시아 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다. 이 주제에 대한 개요는 이미 건축사지 1988년 4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이번호에서부터 2~3회에 걸쳐 기초연사 및 6명의 발표자들의 간단한 소개와 발표할 내용의 초록을 번역하여 접수된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학술토론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토론주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 학술 토론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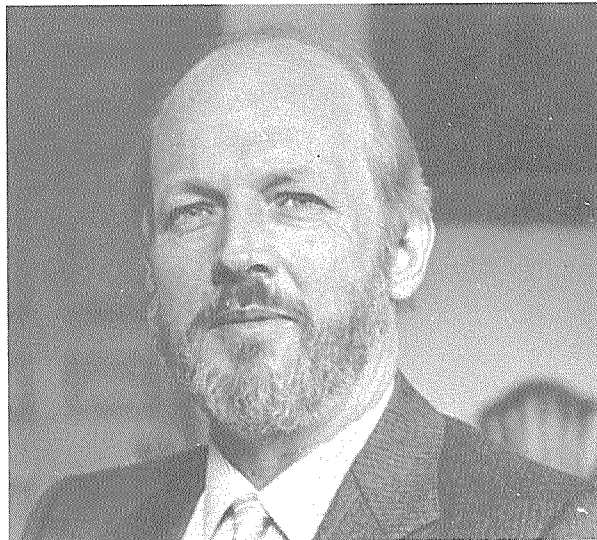
학술토론회는 4개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제4 토론회를 제외하고 매 토론회당 2편의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1편의 주제발표당 주어진 시간은 40분이며 발표자는 발표에 이어 토론회 의장의 주제아래 2인의 토론자와 20분간 토론을 벌이고 다시 15분간 청중들과 토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3개의 토론회에 6명의 주제발표 연사가 참가하게 되며 마지막 제4토론회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대회 수석보고자(Rapporteur General)의 사회로 6명의 발표자, 기초연사, 12명의 토론연사 및 3명의 토론회의장 등이 모두 참석하여 청중들과 더불어 앞서 3회기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진다. 약 25분에 걸친 기초연설은 8일 저녁의 개회식에서 있을 예정이며 학술토론회 일정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 발표문 요약

토론회 1. 첫번째 발표

주제발표연사 : 배리 윌슨 (C.B. Wilson)

발표제목 : 건축사와 공동사회 : 전통적인 과정과 근대건축



C. B. Wilson

발표연사소개 :

1960년 Liverpool 대학에서 이론물리학 박사학위 취득후 응용수학과 환경물리학을 강의했다. 1967년 Edinburgh 대학으로 옮겨 이듬해인 1968년 건축학과와 건축과학(Architectural Science) 교수에 취임했다. 이후 1971년에 Harvard 대학 고등환경설계 Loeb 연구원으로 있었고 Calgary (1975) 대학 및 Khartoum (1976) 대학의 초빙교수로 활약했으며 1976년부터 1979년까지 터키의 Karadeniz 대학에서 유네스코 콘설턴트로 임명되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Edinburgh 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장을 지냈고 현재는 동대학 부학장의 임무를 맡고있다. 그의 원래연구분야는 환경 및 기후를 고려한 설계이며 1974년 이후 '건물과 환경'이라는 국제적인 학술전문잡지의 편집을 맡고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그의 연구 관심분야는 현대의 건축이론과 전통사회의 건축과 예술이다. 그의 최근 논문으로는 '세계의 중심과 건축의 해석' (EAR 11, 1984) '미시우주의 건조' (Shadow3, 1986), '보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본 건축, 기술 및 수사학' (TECH88, 1988) 등이 있으며 15여개국의 나라로부터 약 35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으며 이들 논문의 대부분이 전통건축과 취약형태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 초록 :

전통은 역사적 시간의 변화를 억압하는 시간개념이 배제된 수직축에 집중되는 반면 근대성(Modernity)은 그 수직적요소와 선형적인 실재를 부정하고 또 가치는 무엇보다도 진보, 발전한다는 것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통과 근대성은 상호 대치된다. 개인의 창조적 자유가 전통의

유지에 종속되는 전통사회의 총체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는 건축에 있어 상당한 자율을 향유하고 자기표현이 축복받으며 보상받고 이론과 활동이 번창하는 근대문화의 편린화된 속성과 예리하게 대조를 이룬다. 이들 차이가 상호 대치되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단순한 강조의 변이에 불과한 것인지는 '전통'과 '근대성'을 정의하는 관심의 근원에 달렸다. 전통사회에 근대적인 사고를 흡수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근대적인 것으로 변모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서유럽은 중세 기독교사회의 붕괴이후 문예부흥기의 대두와 함께 전통적인 문명의 특성을 잃기 시작했다. 과학적 사고, 세속적 인문주의, 개인주의와 진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점 등 근대성의 많은 면이 문예부흥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해졌고 시대를 풍미했던 구속없는 예술적 자유에 의해 정당화 되었던 20세기 초의 미래주의와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반 전통적이고 반 역사적이며 탈 지역화한 진정한 근대건축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것은 500년 동안 지속되어온 변화과정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 변화의 결실은(건축가라는 전문직 직업집단의 출현과 이들을 배출시키는 교육구조를 포함해서)전 세계적인 소비에 응하도록 준비된 셈이었다. 작금의 타락한 근대주의의 실용위주 건축에 대한 탈환각 현상과 이에 대한 통상적이 아닌 복잡한 반응들은(이들중 대부분이 역사에서 갈취함에 의존하는)최근까지도 전적으로 전통적이라 할 수 있었던 사회에서까지도 전통적인 건축요소와 이미지를 근대건축에 크게 다르지 않은 건축에 혼합하는 경향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역사로부터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과 지역적인 전통을 재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둘다 장소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건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활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적합한 틀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실패의 원인은 시각적인 대상물로서의 건축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이

적절히 지탱하고 대응해야 할 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들을 도외시 하는데 있다. 이 시점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상물로서의 건축으로 부터 과정으로의 건축으로, 특히 건축가와 사회 그리고 생활공동체의 관계로 논의를 전환하는 것은 전통과 근대성 간의 정통적인 계속성을 발견하는 것과 개인과 생활공동체가 그들의

최대의 가능성에 도달하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건축의 대상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넓혀주리라 믿는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건축가'나 '집' 등과 같은 단어에 대한 전통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통적인 참 의미의 깊이를 되돌려 주는 실천과 감지의 재생에서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상을 수상했다. 1980년부터 유럽과 중국의 여러 도시에 초빙강사 또는 객원교수로 있었으며 1987년에는 MIT 객원교수로 있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건축학회의 취락계획위원장을 맡고있다.

발표문 초록 :

일본에서의 생활공동체 시설물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혹은 도시에서 촌락으로 영향을 주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소위 근대화의 산물로서 생각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건축가들과 관료들은 역사적, 전통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성립되어 온 부락이나 근린지역안의 현존하는 공공생활공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공공생활공간들은 우리들이 그 공간의 지역적인 내용과 지역특유의 사용방법 그리고 그 장소의 지역적인 의미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주자들의 환경의 뿌리였었다. 사실상 근대화의 초기단계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와 일본의 가족제도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가로막는 봉건적인 암적존재로 비판받았다. 부분적으로밖에 진실일 수 없는 이런 관념에 따라 공업화와 행정의 집중화를 겨냥한 건축에서의 표준화와 객관적 기능주의가 생활공동체 (Community) 건축설계에 채택되었다. 주민들과 무관한 생활공동체 건축과 획일적인 규격화된 균질의 환경이 번창해서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지역적 특성들과 더불어 사람들의 특징적 삶의 모습까지 휩쓸어 버렸다.

1965년 오시마 섬의 환경계획에서 고 요시자가 교수와 공동작업자들(나중에 Zoo 라는 팀을 구성했다)은 이러한 조류에 반대하여 '발견을 통한 방법'이라고 부른 새로운 계획방법을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이 방법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건축이나 취락설계를 제안하는 대신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시에 생활환경 및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또 장소에 대한 그들의 태도 등을 세밀히 관찰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우리의

토론회 3. 두번째 발표

주제발표 연사 : 쓰토무 시게무라 (Tutomu Shigemura)
발표제목 : 장소, 환경의 뿌리, 건축



발표연사 소개 :

1946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 와세다 대학교 건축과를 마치고 1974년 동대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78년까지 고 요시자가 교수에게 사사 받았으며 1978년부터 고오베 대학에서 건축과 환경계획을 가르치고 있다. 1970년 동경에 아틀리에 Zo 를 세워서

활동해오다 1979년에는 고오베에 팀 Zoo 와 아틀리에 돌판을 개설하여 실무활동을 해오고 있다. 1972년부터 1978년 사이에 실시된 북부오끼나와의 건축과 환경디자인에 대해 일본 도시계획학회부터 이시가와 상을 받았고 문부성으로부터 예술상을 받았다. 1987년 와끼마찌시 도서관 설계로 요시다 이소야

계획안을 환경의 계획방향과 목표로서 단계별로 제시했다. 우리는 현존하는 환경과 거주자의 생활양식이 환경설계의 배아(Germs)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환경의 유형은 이 배아로부터 자율적으로 움트고 주체적으로 성장한 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안은 새로운 건축적 유행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대신 서로 맞추어 조합하여야 하는 많은 수의 작은 장소들을 제안하고 혹은 그들을 적절히 변화시켰다. 이 의욕적인 생태학적 접근의 계획안은 시장이 교체됨으로서 불행히도 완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팀 Zoo (건축가, 계획가 및 연관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는 18년 동안 많은 지역과 지방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왔다. 우리는 공공회관을 설계할 때 맨 먼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 종류의 공간에 왜 모이며 누가,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대지에 공간적 연속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관찰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공동체 건축은 언제나 우리의 그 지역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며 혹은 생활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지방민들의 노력과의 합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결과되는 모양과 공간은 통상의 해결과 다르게 나타난다. 오키나와의 나고 시민회관 계획에서는 지붕서까래를 가진 큰 연속적인 테라스가 모임관장을 둘러싼다. 이 생각은 종교적 축제에 사용되는 마을의 정자를 관찰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시코꾸의 와끼마찌 도서관 계획에서는 몇개의 오래된 창고건물들이 신축부분과 연결되어 도서관, 미술관, 집회실, 축제광장, 사무실, 성소등의 복합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문화활동 센터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모두가 그 지방의 장인들에 의해 시공 마감되었다.

〈학술 토론회 일정표〉

날 자	토 론 회 기	발 표 자	제 목	토 론 연 사	토 론 회 의 장
11월8일 (화) 저녁	기 조 연 설	한 태 동 (한국)			
11월9일 (수)	토론회 1 건축사와 공동사회	C. B. Wilson (영국)	Architect and Community : Traditional Processes and Modern Products	Rusi Khambatta (인도) Robi Sularto (인도네시아) Lochi Gunaratna (스리랑카) Zhang Kaiji (중국)	Felipe M. Mendoga (필리핀)
		Lye Kum Chew (홍콩)			
	토론회 2 건축사의 사회적 임무	Charles Correa (인도)	The Public, The Private, and The Sacred	Joshua Jih Pan (대만) Ejaz Ahed (파키스탄)	김 성 국 (한국)
		N. J. Habraken (미국)	Types as a Social Agreement	Froilan Hong (필리핀) Romi Khosla (인도)	
11월 10일 (목)	토론회 3 미래의 건축사의 역할	강 홍 빈 (한국)		Esa Mohamed (말레이시아) Kamil Khan (파키스탄)	Sumet Jumsai (태국)
		Tsutomu Shigemura (일본)	Place, Environmental Stock, and Architecture	Tao Ho (홍콩) 장 성 준 (한국)	
	토론회 4 종합토론		모든 발표자, 토론연사, 및 보고자들		수석 보고자 Tay Kheng Soon (싱가폴)